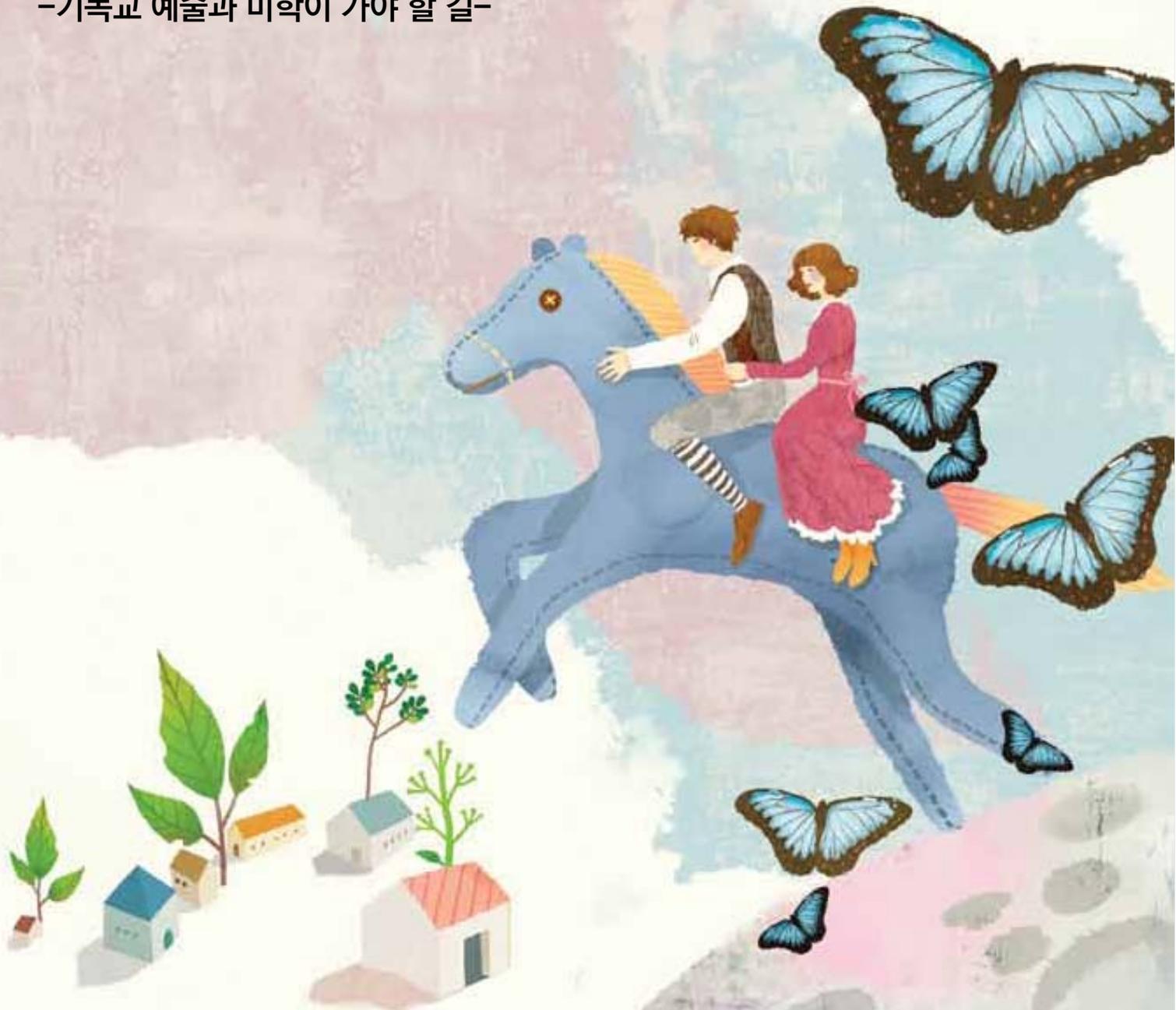


Art in Action

-기독교 예술과 미학이 가야 할 길-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IVP) 등이 있다.

예술에 대한 통찰은 개신교가 회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전후하여 성상논쟁을 포함한 예배 갱신 논의를 통해 예술에 대해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성상반대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는 목회적 관심만큼이나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발전시키지 못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와 특히 18세기에 들어와 아름다움과 예술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태동한 근대미학의 강한 반기독교적 성격도 개신교가 예술과 미학을 도외시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술에 관심을 쏟은 칼빈주의자들이 있었다. 종교 연구와 미학의 통합을 시도한 반 더 레우(Gerardus van der Leeuw)가 좋은 예다. 그는 예술과 종교가 대립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는 현대적 사고를 비판하며 춤과 드라마, 문학, 미술, 건축, 그리고 음악의 원시 형태는 모두 종교에 뿌리를 두고 발생하여 예술로 분화·발전했다는 이론을 세웠다. 칼빈주의가 예술도 국가, 교회, 가정, 학교와 더불어 독립적인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가진다는 점을 확립해 예술이 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원리에 따라 발전토록 했다는 카이퍼의 주장도 빈 말이 아니다. 이 분야의 연구가 네덜란드의 한스 로크마커, 캐나다의 칼빈 시어벨드, 그리고 월터스토프 같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예술이론을 개발하려는 이들은 현대서구미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서 출발한다. 현대미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신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기초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심미적 차원과 예술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규정하려 한다. 예술도 다른 문화적 활동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소명임을 강조한다. 예술은 사치이거나 장식이 아니다. 예술은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관적 기구이다. 특히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일부로 창조주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세계투영행위, 예술

월터스토프의 주장에 주목해보자. 그가 이러한 관점을 전개하기 위해 택한 전략적 출발점은 “예술은 행위”라는 논제로,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미학의 근본 논쟁점에 대한 그의 답이기도 하다. 월터스토프는 예술을 세계의 모방으로 보는 표상론(表象論)을 반대한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예술이 일종의 언어로 인식적 기능을 하므로 과학과 기능상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미학자들은 예술품은 지시 대상이 없는 언어이므로 진위 판단이나 인식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표상에서 예술의 실재적 속성을 찾으려는 이론은 난관에 봉착했다. 비구상적인 회화나 조각, 특히 심포니 음악이 무엇의 모방이며 표상인지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현론(表現論)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을 진리나 실재의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한편 형식론(形式論)은 예술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실재하지는 않으나 어떤 사물 현상 또는 행위의 보편적이며 불변적 요소인 형식의 심미성으로 규정하면서 예술품을 예술의 질서 안에 있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술이론들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데 있다. 각자 예술의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그 본질을 가시적이고 실재적인 속성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단토(Arthur Danto)나 디키(George Dickie)처럼 제도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입장들과 달리 월터스토프는 예술의 본질을 창작이나 공연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 투영(投擲)”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예술은 행위를 유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주의적 예술관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예술을 일상의 탈피나 고상한 경험을 위한 것으로 보는 근대미학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예술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 표현이나 관객의 느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행위이며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일을 같이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예술의 가치는 창작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대상을 제공하

는데 있다. 예술품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다른 부분과의 연관을 부정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오류이다. 이는 18세기에 고급예술의 기구가 형성되면서 문화 엘리트들 사이에 조성된 관점으로, 결국 예술을 감상용으로 전락시키거나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술가와 미학자, 비평가 모두가 이 생각에 빠져서 예술이 삶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월터스토프는 찬송가를 예로 들어 감상용이 아닌 예술이 가득함을 상기시킨다. 예술이 삶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인간의 의도를 행하는 수단이요 목적인 이상, 그것은 삶 속에서 하는 다양한 행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예술을 축소하고 삶의 연관도 축소될 위험이 있다. 예술은 감상이라는 한 가지 지배적인 목적에만 종사하지 않고 다양하고 유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의 보편성이나 예술의 공적(公的) 사용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월터스토프의 목표는 심미적 감상에 기초한 수동적이고 정적인 예술 개념을 비판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르네상스로부터 18세기 미학과 학문, 그리고 19세기 박물관의 등장까지를 집중 분석하며 예술계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내면화 되어가는 과정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인류학적 통찰과 심리학의 결과들을 사용하여 예술의 맥락과 기능을 넓힌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일상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한편, 특별한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고급예술의 독재를 깨뜨리려 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현대 예술의 우상화와 종교적 함축을 강하게 비판한다. 예술은 신이 되거나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 창조주를 섬기는 인간적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에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오만하게 부각시키는 대신 겸손히 섬겨야 할 책임이 따른다. 예술 자체가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고급 예술의 고압적이며 자율적 태도는 사회적 연관성을 상

실케 해 예술의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이전에 교회가 그러했듯 고립 대신 공동체의 깊은 확신을 드러내는 예술이어야 한다.

월터스토프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의 이해를 제시한다. 그는 예술이 피조물적 인식과 청지기적 소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술계에 널리 퍼져있는 해방으로서의 예술 개념을 넘어서는 생각이다.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독특하다고 했다. 인간만이 자유롭게 주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과 책임 규약으로 묶여있음에 기초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책임은 자유를 전제하며 상상력 또한 요구한다. 인간은 자연세계에 부과된 질서를 정복할 책임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술가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자연을 살림의 추구로 가꿀 정원사로서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예술의 사명

기독교 예술의 사명은 변혁과 살림의 실천으로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속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상과 표현에 기초한 세계 투영을 통한 비판과 통찰, 안목 열기, 세계관 기구의 역할이 포함된다. 이는 일종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예술은 또한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여 공동체의 축제의 중심에 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는 “구속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사명들을 수행해야 한다.

로크마커나 시어벨드도 이 점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 예술이 자기 표현이나 예술을 위한 예술, 정치적 이데올로기, 상업적 목적에 종사하는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술에 대한 바른 관점과 유기적 연관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시장에 의해 조정되고 평론가들에 의

해 좌우되는 고급예술 관점에 참여하곤 했다. 기독교 예술도 대중화와 대량화를 피할 수 없는 시대이다. 기독교 현대음악(CCM)의 예처럼 상업적 구조와 속성을 온전히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은 세상의 변혁을 통해 살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술도 기독교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기독교 미학의 중심주제이다.

오늘날의 예술,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이런 기독교 미학이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고대와 중세가 신학의 시대요 근대가 철학과 과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미학의 시대이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미학 논의는 예술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윤리 문제를 포함하곤 한다.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그렇다. 오락과 연예로 가볍게 취급되는 대중예술은 본질상 세계 투영을 통한 예술 본연의 교육과 연예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중예술에 관한 논의는 예술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이며 윤리적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며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기초가 요구된다. 오늘날 문화예술 연구에서 해석학적 접근이 중시되는 것도 예술의 본질과 역할을 결코 삶의 복합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은 언제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예술이 삶과 자연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세계를 제시함이다. 예술은 단지 감상용이거나 장식용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종교 역시 부차적인 요소로 삶에 부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삶의 근저에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과 문화에 가깝다. 종교는 교리와 상징을 통해 본질상 보이지 않는 신과 영혼 같은 영적 실재를 드러내고 형상화한다. 이는 우상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신앙은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의 말처럼 문화는 “종교의 구현”이며 삶으로 실현된 종교이다. 미학이 기독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 문화이나 음악, 미술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 문화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독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독교 예술이론 또는 미학은 예술 일반과 감성주의 문화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이론이 예배 갱신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작업에서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술과 미학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로크마커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16-17세기 네덜란드에 기독교 미술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신학적 개혁 후 100년이 넘는 인내와 긴 세월의 작업이 필요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는 예술도 변혁의 대상이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예술이 변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깊이 사고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 후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세계가 무신론적으로 된 것은 무신론자들이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헌신적 실천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했고 현대의 경향성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형성된 현대 무신론적 문화와 예술이 세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60년대 록 음악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라. “기독교적 상상력에 기초한 창조적이고 흥미롭고 훌륭한 기독교 음악이 유행했다면 기독교는 훨씬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로크마커의 이 말은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예술과 그에 관한 연구가 왜 절실한지를 역설해준다. ☺